

고요한 사색... 겨울 호수를 걷다



국시봉에서 내려다 본 옥정호. <임실군 제공>

'전북 특자도의 보물' 임실군 운암면에 소재한 옥정호가 최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929년 일제강점기에 준공된 운암댐은 김제와 군산 등 만경평야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됐다. 이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1965년에 2차로 준공된 섬진강 댐은 일제강점기에 이어 이 일대 원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애환이 서린 곳이다.

1998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어업과 유선업, 음식점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원주민들은 세 번째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100년간에 걸쳐 고통의 땅으로 치부된 옥정호는 그러나 민선 6기를 맞은 2015년, 현 심민 군수가 3선의 연임을 거치면서 희망의 신세계로 변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이곳은 화려한 수변과 봉어섬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개발이 진행, 섬진강 브리더스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생태관광 개발 기반 마련

민선 6기의 가장 큰 성과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그동안 경제활동 위축과 지역개발 제한, 재산가치 하락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줬던 온군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옥정호 장기비전 수립으로 체계적인 수변생태공간을 구축했다.

2017년 완료된 봉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과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옥정호는 임실군의 대표 관광



봄꽃으로 가득한 봉어섬 생태공원.

전북 임실 '옥정호'

일제강점기 군산·김제 등 농업용수 공급 목적 건설

1965년 2차 댐 건설로 원주민 강제 이주 애환 서려

2015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후 생태공원 변신 중

봄 꽃·여름 초록·가을 단풍·겨울 물안개 '눈호강'

케이블카·짚라인 등 대규모 위락시설 조성도 착착

지로 성장했다.

민선 6기와 7기를 지내오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나, 오랜 기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기에 옥정호의 발전 잠재력은 갈수록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

◇ 옥정호 관광 개발 통한 섬진강 브리더스 프로젝트 완성

군은 현재 친환경적으로 옥정호 수변개발을 이어가면서 수상레포츠 등 수면개발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짚라인 등 대형 민자사업도 유품해 옥정호에 대규모 위락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자라섬 생태공원화와 생태수목원, 옥정호 수변도로 준공 등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읍시와의 급수체계 변경도 전북도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탐방선 등을 띠워 관광객에 힐링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과 추진 성과

임실군은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체계적 계획수립 및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제1호 다목적댐 위상에 부합하는 계획적 개발과 친환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변지역의 난개발도 방지하고 있다.

친환경적 개발을 최우선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80억원을 투입, 대형 프로젝트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은 경관이 뛰어난 운암면 옥정호 일원에 환경교육과 관광기반 설치를 통해 자연을 체험하는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은 에코누리 캠퍼스와 봉어섬 에코가든, 에코투어링 루트 및 감성투어로드를 조성하고 생태탐방선을 운행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옥정호 주변을 도보로 여행하는 물문화 둘레길 7.3km도 내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교감하는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적 인 지역개발사업이다.

봉어섬 에코가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봉어섬 부지 6만6000㎡를 매입해 방문자센터 건립과 소나무, 구절초등 다양한 교·관목과 초화류 등을 식재했으며 출렁다리 준공에 맞춰 삼림욕장 개장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에코누리 캠퍼스 개발사업은 6만5785㎡ 부지에 리조트와 에코누리관 신축, 에코광장 및 수변데크와 주차장 조성 등으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에코투어링 루트와 감성투어로드 사업은 옥정호 순환도로 경관보완 및 오감쉼터 조성, 생태탐방로에 이어 생태탐방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경관이 뛰어난 옥정호를 체험하는 사업이다.

또 옥정호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국사봉 전망대 설치와 스카이워크, 국내 최대 봉어섬 출렁다리 등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향후 추진계획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시행 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연계해 옥정호의 수변 및 주변 지형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자원 개발과 산악레포츠 체험기반시설 조성, 수변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노후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도모를 위한 개발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250억원이 투입됐다.

산악레포츠 체험시설(곡선형 짚라인·에코라이더·알파인코스터·휴게공간·요산공원 리모델링 등)에 135억원을 투입해 자연친화형 체험공간을 구축한다. 수변관광기반시설로 테마공원과 캠핑장에 이어 수변데크와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등에도 115억 원을 투입해 섬진강을 활용한 수변과 생태, 산림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섬진강댐 건설 이후 반세기 넘게 개설되지 않은 미완의 도로인 옥정호 수변도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특별법이 적용돼 연차적으로 완공될 전망이다.

/전북일보=박정우 기자



봉어섬 출렁다리 전경.